

# KIA, '즉시 전력감' 덕수고 투수 김태형 품었다

KBO 2025 신인드래프트

구속 151km·다양한 변화구 구사  
지난해 청원고 경기 '노히트노런'  
전주고 투수 이호민 등 11명 선발

덕수고 투수 김태형이 '서울 유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는다.

KIA가 11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된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김태형을 1라운드 선수로 지명하는 등 총 11명의 '아기 호랑이'를 낙점했다. 마운드 왕조로 거듭나고 있는 KIA는 8명의 투수와 내야수 1명, 외야수 2명을 선택했다.

186cm, 91kg의 건장한 체격의 김태형은 최고 구속 151km의 위력적인 빠른볼을 바탕으로 슬라이더, 커브, 스피리터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즉시 전력감'이다.

지난해 6월 10일 청원고와의 주말리그 경기에서는 노히트노런도 달성했다.

광주 서림초에서 야구를 시작해 화순중-덕수고를 거친 김태형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KIA에 뽑혀서 기분이 좋다. KIA를 응원하고, KIA 선수들을 많이 보면서 성장했다"며 "KIA에서 꼭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IA는 2라운드에서는 전주고 투수 이호민의 이름을 불렀다.

나주북초 출신인 우완 이호민은 184cm, 85kg 체격을 갖췄으며 제구력이 좋고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위력적인 체인업업을 보유하고 있으면 탈삼진 능력이 뛰어나다.

KIA는 3라운드에서는 인천고 외야수 박재현을 선택했다.

178cm·75kg의 박재현은 컨택 능력과 빠른 발이 장점으로 꼽힌다. 올해 U-18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는 주전 외야수와 리드오프로도 활약했다.

4라운드에서는 공주고 투수 양수호를 지명했다.

187cm, 85kg의 우완 양수호는 구속 150km가 넘는 빠른볼을 가진 '우완 파이어나볼러'로 공의 움직임도 좋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5라운드 지명 선수인 부산고 우완 투수 김정엽은 186cm, 92kg의 체격을 갖췄으며 좋은 슬라이더를 앞세워 중간투수로 활약이 기대된다.

6라운드에서 호명된 강릉영동대 우완 투수 최건희는 '군필'로 논길에 끈다. 185cm, 78kg 체격의 최건희는 빠른 구속과 좌우타자를 가리지 않는 체인업이 주무기이며, 불펜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다.

KIA는 이어 휘문고 투수 나연우, 경기상업고 투수 임다운, 전주고 내야수 엄준현, 유신고 투수 이성원, 광주일고 외야수 박현을 순서대로 지명했다. 우완 투수 나연우는 뛰어난 구위가 강점으로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우완투수 임



2025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KIA 1차 지명을 받은 덕수고 투수 김태형이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운은 제구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운동능력이 뛰어난 엄준현은 장타력을 가진 내야 유틸리티 자원으로 꼽힌다.

빠른볼을 가진 우완 투수 이성원은 각이 큰 변화구가 장점이다. 중장거리 타자이자 강건한 박현은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KIA 타이거즈 권운인 운영1팀장은 "우완 투수를 지명했으며, 신체조건이 뛰어나고 빠른 공을 던지는 유형과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난 유형을 고르게 지명했다"며 "야수는 주력과 수비에 강점을 보인 선수로 미래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KIA 박현을 비롯해 광주일고 출신 5명이 지명회의에서 이름이 불렸다.

광주일고 에이스인 좌완 김태형이 롯데의 1라운

드 선수로 호명됐다.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부산과학기술대에서 뛰고 있는 내야수 최민규도 8라운드에서 롯데의 지명을 받았다.

김태형과 팀의 원투펀치로 활약한 권운인은 삼성의 5라운드 선수로 프로무대에 도전한다.

광주일고를 거쳐 동강대 원광대에서 활약한 외야수 정영웅은 KT의 10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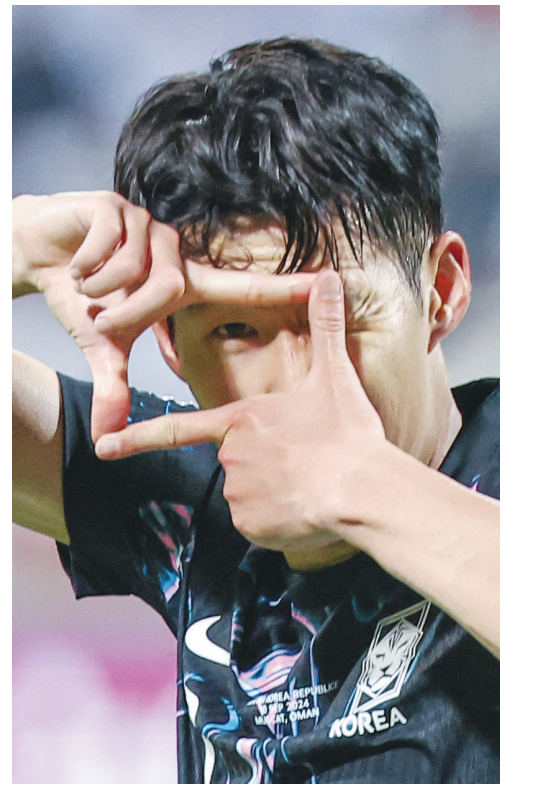
LG가 5라운드에서 선택한 전주고 외야수 서영준도 화정초에서 야구를 시작한 지역 출신이다.

조윤재 광주일고 감독은 "올해 4강에 두 번 들기도 했지만 만큼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졸업생까지 5명이 지명을 받아서 기분이 좋다"며 "이제 시작이니까 늘 강조했던 것처럼 예의 바르고 인성 좋은 선수들로 프로에서 활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매번 인생 최고의 경기 펼칠 것"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2차전  
홍명보호, 오만 3-1 누르고 첫 승  
주장 손흥민, 1골 2도움 맹활약



10일 오후(현지시간) 무스카트 스타디움 카부스 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한민국과 오만의 경기. 손흥민이 득점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만에 다시 결성된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의 첫 승을 이끈 주장 손흥민(토트넘)은 "매번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손흥민이 맹활약한 한국은 10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의 스타디움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오만을 3-1로 꺾었다.

2014년 지휘봉을 내려놓은 후 10년 만에 다시 선임된 홍명보 감독 체제로 꾸려진 대표팀의 첫 승리다.

지난 5일 안방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팔레스타인과 1차전(0-0 무승부)에 승전고를 울리지 못한 대표팀은 오만 원정에서야 패승을 챙겼다.

주장이자 간판 공격수 손흥민이 모든 골에 관여하며 1골 2도움으로 맹활약한 덕이다.

원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격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된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승점 3을 챙겨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오늘처럼 어려운 경기에서 승점 3을 챙겨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항상 승리가 너무나도 좋다"는 손흥민은 "그렇게 승리하려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오늘 모든 선수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돼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최고의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도달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손흥민은 팔레스타인전에서 선수들이 불편을 호소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대한 아쉬움도 표명했다.

그는 "일단(오늘) 그라운드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서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더 자신 있게 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홈 경기장에서도 계속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팀이 정말 발전한 것 같아 같은 아시아 사람으로서 참 뿌듯하다. 이런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수 있어 좋다"며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가진 기량을 100%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경기

막판 연거푸 실점하며 무너지기 전까지 단단한 조직력을 보여준 오만을 아시아 축구 발전의 사례로 언급했다.

손흥민은 "오만이라는 팀에 큰 존경심을 보인다. 아시아 축구가 발전해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만전 승리를 통해 팔레스타인전 무승부의 아쉬움을 어느 정도 털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축구대표팀의) 첫 출발이 깔끔하지는 않았는데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이겨서 더 단단한 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전에 아쉬움을 삼킨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솔선수범해 팀 분위기를 다잡으려 했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노력했다. 대표팀이라는 자리에 부담을 갖는 선수가 있는데, 당연히 책임감은 다 가지겠지만 한 경기 끝난 것이니 고개 숙일 필요 없다고 많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이제 (3차 예선) 8경기가 남은데, 인생 최고의 경기를 할 기회가 8번 남아 있다"며 "오늘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광주FC, 파이널A 진입 위한 '벼랑 끝 승부'

승점 7점 차 포항과 13일 K리그1 30R 홈 경기...패배면 파이널B로



A매치 휴식기를 보낸 광주FC가 벼랑 끝에서 포항스틸러스를 만난다.

광주는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을 상대로 K리그1 30라운드 홈경기에서 나선다.

말 그대로 다음은 없는 '벼랑 끝' 승부다.

광주는 현재 승점 37로 7위에 자리하고 있다. 울산HD에 막혀 코리아컵 우승 도전을 중단한 광주는 '파이널 A'라는 목표를 남겨두고 있다.

파이널 A의 마지막전은 6위, 포항이 승점 44로 6위에 자리했다. 이번 경기가 끝나면 스피릿 라운드까지 3경기만 남는다. 포항전에서 패배를 기록하면 두 팀의 격차가 10점 차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광주의 파이널A 도전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승리가 갈질한 광주지만 핵심 선수들의 공백이 예상된다.

광주의 '살림꾼' 정호연과 최근 공격의 핵심으로 떠오른 아사니가 A매치 기간 국가대표에 소집됐던 만큼 두 선수의 자리를 효과적으로 채우는 게 중요한 숙제가 됐다.

이강현과 박태준이 허리 싸움을 하면서 중심을 잡게 된다. 수문장 김경민을 중심으로 안영규, 변준수가 후방 수성에 나선다. 이희균, 최경록, 이민기 등 베테랑 선수들도 승리를 위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드리블 돌파 능력과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갖춘 오후성이 아사니를 대체할 카드로 꼽힌다.

절박한 승부에서 나오는 광주지만 포항도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시즌 초반 '짠물 수비'로 리그 선두를 달렸던 포항은 최근 5연패 중이다. 앞선 울산전에서 5골을 허용하는 등 5연패 기간 13실점을 했다.

수비수 이동희의 부상 공백 속 골키퍼 황인재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광주는 수비 빈틈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이번 경기는 파이널A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승리이자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E)의 분위기를 띄우는 무대이기도 하다. 광주는 포항과의 경기에서 이어 17일 오후 7시 요코하마 F.마리

노스와 ACLE 첫경기를 치른다.

한편 이날 포항과의 경기에서 앞서 광주의 열성팬인 노라조 조빈의 광주FC 공식 홍보대사 임명식이 열린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시축자로 나선다.

K리그2 우승에 도전하는 전남드래곤즈도 안방에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전남은 15일 오후 4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 K리그2 3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승점 43점을 쌓은 전남은 1위 FC안양과 승점 5점 차 2위다. 안양이 아직 밀리 있지만 3위 서울이랜드(승점 42)는 1점 차로 바짝 추격해 왔다. 4위 충남아산FC와 5위 수원삼성도 승점 41점을 기록, 2점 차 밖에 있다.

전남은 승점 3점을 확보해 이들의 추격을 막고 안양을 압박해야 한다.

최근 5경기에서 전남과 부산은 2승 1무 2패로 팽팽히 맞섰다. 최근 부산의 흐름도 좋다. 조성환 감독 부임 후 7경기에서 4승 1무 2패를 기록하는 등 분위기가 반전을 이뤘다.

라마스, 임민혁과 함께 유혜일을 막아야 한다. 특히 시즌 중반 트레이드를 통해 부산으로 이적한 유혜이는 지난 7월 맞대결에서 '진정' 전남의 골대를 갈랐다. 전남은 이 경기에서 2-3 패배를 기록했다.

전남은 부상에서 돌아온 김종민과 하남 그리고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발디비아와 임찬울로 부산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U-20 여자 축구 '어게인 2010'

12일 콜롬비아와 월드컵 16강...14년 전 3·4위전서 1-0 제압

한국 20세 이하(U-20) 여자 축구대표팀이 콜롬비아를 상대로 2024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 월드컵 8강 진출에 도전한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U-20 여자 축구대표팀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콜롬비아 칼리의 파스쿠알 게레로 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월드컵 16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D조에서 1승 1무 1패로 3위에 오르며 16강 한자리를 꿰찼다.

참가국이 16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어난 이번 대회에선 4개 팀씩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그리고 조 3위 6개국 중 상위 4개국 16강에 진출해 단판 승부를 앞붙다.

박윤정호는 2일 나이지리아에 0-1로 지고, 5일 베네수엘라와의 2차전에서 0-0으로 비기며 16강 진출을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였으나 8일 3차전에서 독일을 1-0으로 잡으며 D조 3위(승점 4)로 마쳤다.

조 3위 6개 팀 중 3번째로 좋은 성적을 낸 한국은 극적으로 16강에 합류했다.

2014년 캐나다 대회(8강) 이후 10년 만에 U-20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한 한국의 다음 목표는 '14년 만의 단판 승부 승리'다. 한국의 이 대회 단판 승부 승리는 역대 최고 성적인 9위에 오른 2010년 3·4위전이 마지막이다. 당시 상대가 콜롬비아였다.

2010년 8월 독일 빌레펠트에서 열린 U-20 월드컵 3·4위전에서 한국은 지소연(시애틀 레인)의 선제 결승포에 힘입어 1-0으로 이기고 3위로 마친 바 있다.

한국은 직후 2012년엔 조별리그를 통과한 뒤 단판 승부 첫 경기인 8강전에서 일본에 1-3으로 졌고, 2014년엔 프랑스에 승부차기에서 겨 2차 8강에서 탈락했다.

이후 본선에 출전한 2016년과 2022년엔 조별리그를 넘지 못했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토너먼트 진출 성공에 이어 승리까지 노린다.

14년 전 한국에 겨 4위로 마쳤던 콜롬비아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선 호주와 카메룬, 멕시코를 연파하며 A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호주의 첫 경기에서 2골, 카메룬과 멕시코를 상대로는 1골을 넣었고, 실점은 단 1골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뽐냈다.

7일 조별리그 일정이 끝나 우리나라보다 하루 더 쉬며 16강전을 준비한 것도 콜롬비아로선 호재다.

한편 북한은 13일 오전 6시 30분 메데인에서 오스트리아와 16강전을 치른다.

U-20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 2회(2006·2016년), 준우승 1회(2008년)를 기록한 북한은 2018년(8강) 이후 6년 만에 출전한 U-20 여자 월드컵에서 순항 중이다. /연합뉴스